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농협



제1335호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송영길 내일 구속여부 갈린다 돈 봉투·증거인멸 의심 해소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뒤 열린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당내에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4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대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어야 한다.

8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돈 봉투 살포 관여 혐의로 구속 심사

일단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돋던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립 돈 봉투 20개, 총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권유하고 박 전 보좌관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

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

와 면고사는 문제연구소'(역사연) 등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불법 정치자금 및

IMF총재 “한국경제 내년 반등 전망…횡재세보다 자발적 상생협력 지지”

尹대통령, 방한 계오르기에바 총재에 “구조개혁 차질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며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계오르기예바 총재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조만간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오르기예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이 IMF 권고에 부합한다고 그간 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 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계오르기예바 총재는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개선과 중국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 반등이 전망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내년 성장을 2.2%로 예상하며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본격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계오르기예바 총재는 횡재세와 관련해 캐나다는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 송원기 기자



배우 이선균(왼쪽)과 이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강남의 유흥업소 여실장 A씨.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이선균 사건’ 룸살롱 실장, 비공개 재판 요청…법원 기각

배우 이선균(48·남)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항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혁선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통상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원하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받을 수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그동안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인천

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택배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 B(42·남)씨로부터 건네 받은 마약을 이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마약 사건으로 혐박당했고 3억 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마약인 줄 모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최소 5차례 A씨 집에 페로폰이나 캐터민을 투약했다”며 “증거로 확인한 투약 횟수만 5차례이고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항정 혐의를 받는 의사 B씨를 최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권정석 기자

野 ‘고문치사’ 연루자 공천 적격판정 번복…논란 일자 ‘부적격’

강력범죄 실형 전력 정의찬 재검증…“워낙 자료 많아 분리하다 놓친 것”



민주당 정의찬 당 대표 특보

검증위는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은 강력범죄·성 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 성 다주택자 등이다. 이에 앞서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내린 ‘적격’ 판정에 대해 “우리가 놓친 것,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워낙 자료들이 많아 분리하다가 놓친 것”이라며 “언론에서 만약 (적격을) 안 해줬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 (보도를) 보고 ‘이거 큰 일 났다’고 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정 특보의 검증 통과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한 바 있다.

정 특보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제명 캠프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을 맡는 등 이 대표의 측근으로 여겨진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총련 간부들이 이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각종 고문을 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건

으로, 정 특보는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정 특보는 재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의 부적격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

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폭행 현장에 있지도,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2002년 무리한 공안 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며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 수사를 괴로워하다 남총련 의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짰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특보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사면·복권을 받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검증위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라 모든 것을 책임진 것이라 말했고 사면·복권 자료도 다 제출 했다”고 강조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심사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위원회가 재심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 정 특보를 적격으로 판정한 데 이어 재검증에서 판정을 번복한 것까지 심사해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니 어물쩍 ‘적격’으로 넘어가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그동안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인천

경기도지사 시절

정 특보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한미, 내년 8월 UFS 때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한다

2차 핵협의그룹 개최…美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도 늘릴 듯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파'(UFS·을지프리덤실드)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금까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적은 없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한미가 처음으로 함께 연습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 협의그룹(NCG) 회의가 끝난 뒤 가진 특별 간담회에서 "내년도 자유의 방파(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선(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은 3월에 열리는 '자유의 방파'(프리덤실드·FS)와 8월에 개최되는 UFS 연습이 있다. FS는 한미 양국 군대만 참여하고 UFS는 정부기관도 참여한다. 김 차장은 8월 UFS를 언급한 것은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훈련 때 한미가 핵 작전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억제하는 연습을 해왔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거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정권 종말을 거론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해 핵 사용을 억제한다는 개념이었다.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이에 미국이 핵을 북한 지역에 투하하는 연습을 UFS 때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에 열린 제1차 NCG 회의에서도 미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양국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지금까지도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 위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두번째)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대국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올해 미군의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17회 전개돼, 작년 5회와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발 안팎을 장착할 수 있는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이 1981년 3월 이후 42년 만에 국내 입항했다.

10월에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B-52H가 미국 본토 혹은 곳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한국 공군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한국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은 처음이었다.

김 차장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제2차 NCG 회의에서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노건우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오른쪽)과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고 있다.

안철수, 野탈당 이상민에 합류 제안

李 “與 사정 어지러워”

하다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표, 문 대표 적극 지지층 등과 갈등을 겪다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이 의원은 "상식의 정치, 정의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어느 입장에 놓여있듯 그것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위해서는 철석처럼 합심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겪어오셨던 성과도 있고 시행착오도 말씀 주셨다"며 "내가 정치적 행로를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대한 민국 정치적 상황이나 신당 움직임까지 좋은 정보와 지혜를 주셨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면담 모두발언에서 "(탈당 후) 선택지 중 국민의힘도 있는데, 국민의힘 사정이 밖에서 보면 상당히 어지럽다"고 지적했다. / 한순철 기자

28년 만에 검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공범, 징역 18년 선고



살인죄 시효만료 노리고 자수한 조폭, 28년만에 '감옥행'

다는 보복 범죄에 나서 엉뚱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당 기간 외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당시 범죄 조직상 지위,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 공범 2명은 1994년 이후 28년간 도주를 이어가 미검자로 남았다.

서씨 외 미검 공범 1명은 공개수배 중인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강철민 기자

경찰 “하늘궁서 숨진 남성 섭취 추정 ‘불로유’ 이상 없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남성이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유에 대한 독극물 검사 결과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성의 시신 부검에서도 특이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와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까지 이상이 없다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80대 남성 A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유'(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인 우유)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독성 성분 등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오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하늘궁 운영 모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사망한 A씨가 불로유를 소량 마셨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국과수 부검과 우유에 대한 독극물 검사를 진행하는 등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지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를 받아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만약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하늘궁 측은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하늘궁 측으로부터 불로유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이 아닌 배우자만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 오은정 기자

국민건강 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

금연치료, 지금 시작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금!

- 혼자하는 금연보다 금연성공률 6배 UP!
- 금연치료 완료하면 진료비도 전액 환급!

금연치료지원 상담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단App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병·의원 찾기

금연치료 전문가인
의사선생님께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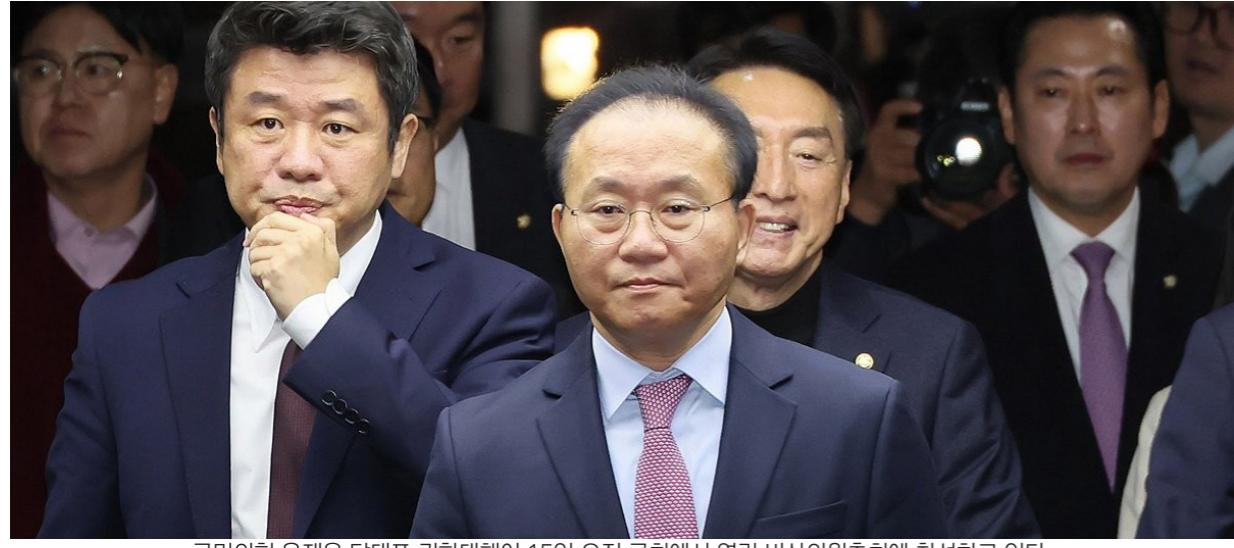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처방

이수조건 충족시
본인 부담금
전액 환급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與, 성탄 전후 비대위원장 정할듯…한동훈 급부상속 인선 속도

주류 “파격적 쇄신 필요” 韓 띠우기…“정치경험 없고 최측근이라…” 비주류 반대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의 명운을 건 총선 정국에서 집권당의 지도부 공백이 길어져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한(1월 10일)을 역산할 때 이 달 내로 비대위를 출범해야 안정적 선거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크리스마스인 25일을 전후해 비대위원장장을 맡을 인물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말인 25~26일까지는 비대위원장장을 확정해야지 비대위도 구성하고 1월에는 곧바로 공관위를 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다음 날인 전날 중진연설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곧바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비대위원장 적임자를 찾기 위한 당내 논의는 정치적 경륜과 안정감을 갖춘 ‘여의도 출신 인사’ 또는 외연 확장에 쇄신 효과를 더할 ‘파격 인사’로 갈리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급부상한 상태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도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된 인사는 한 장관이었다. 특히 주류 친윤(친윤석열)계에서 한 장관을 적극적으로 천거하고 나섰다.

친윤 의원들은 높은 인지도와 참신성 등을 들어 한 장관을 앞다퉈 비대위원장 감으로 추천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한동훈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주류 의원들은 한 장관이 현실 정치와 선거 경험이 없는 점, 대통령 최측근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론을 했다.

한 장관에 대해선 비대위원장 대신 선대위원장장을 맡아 ‘총선 바람몰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야 선명성과 수도권 민심 공략에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친윤계 인사는 “찬반 논쟁이 붙을 정도로 당내 여론의 중심축에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원 장관은 선거 경험이 풍부하고 당을 아우를 수 있는 중진 정치인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는 김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당원들의 거부감을 걱정하는 의견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4선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계속 거론된다. 하지만 나 전 의원 본인은 전날 기자들이 비대위원장직 요청 및 수락 여부를 묻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당이 겪는 위기의 원인으로 ‘수직적 당정관계’가 지목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나 전 의원은 3·8 전당대회 당시 친윤계 압박 속에 출마를 포기했다.

한 장관이 총선 정국을 헤쳐갈 구원투수로서 현재 주류 측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비대위원장 인선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은 남은 상태라 장담하기 어렵다.

윤 대표 권한대행도 앞으로 계속 여론 수렴과 후보 물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오는 18일 원·내외 당협위원장 227명을 대상으로 연설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비대위원장 인선을 비롯해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 운영 방향 등을 놓고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을 당정관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의총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서병수 의원),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이용호 의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허은아 의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 송유영 기자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에

“이번 임시회서 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연내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들과 만나 “이번 임시회 안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앞 천막 단식 농성장을 찾아 “유가족들에 비할 수 없겠으나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진인사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대여당이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일방 처리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안은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며 “여야가 최대한의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앞에 차려진 보건

의료노조의 농성장도 방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12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노조 관계자가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으로 삼고, 증액을 도와달라”고 하자 “이재명표라고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너무 세게 요구하면 반작용이 있을까 걱정된다. 상식선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성남의료원이 적자로 위탁 운영 될 것 같다’는 노조 관계자의 우려에 “내가 성남의료원 조례를 만들 때 위탁이나 직영이나를 두고 얼마나 싸웠는데”라며 “결국 위탁으로 다시 바꾸려나 보다.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는 KBS 수신료를 이상하게 바꿔서 KBS에 적자가 나니 민간에 팔겠다고 하는 작전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 백도경 기자

與, 野 ‘고문치사’ 연루자 공천 번복에 “친명 범죄자들 날뛰어”

“이재명 사당화 지속되면 사천 반복될 것…비정상적 행태 엄중 심판 확신”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한 총선 후보자 적격 판정을 번복한 일과 관련, “파렴치한 무자격자 공천 낭발을 국민께서 심판해달라”며 맹비난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총선에서 온갖 부도덕한 이들에게 공천장을 뿌려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게 만들어 놓고 반성은커녕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라는 이재명 대표의 해명에 대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정 씨를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 했다가 고문치사 사실이 알려져 4개월 만



에 사임한 전력이 있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거짓임이 분명하다”고 쏘아붙였다.

윤 선임대변인은 또 “이 대표를 등에 업고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딸’들의 흰호받으며 수많은 범죄자와 파렴치한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날뛰고 있다”며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 이러 라고 만들어진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재명 독재에 따른 이재명 사당화가 지속되는 한 사천은 반복될 것

이고, 민주당의 도덕성은 결국 바다날 것”이라며 “민주당의 경악스러운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하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2차 겸종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정 특보가 여기에 포함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전날 재검증을 거쳐 부적격으로 판정을 번복했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 강균성 기자

日 아베 부인, 지난주 방한해 김건희·김정숙 여사 각각 만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지난주 방한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각각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아베 여사는 최근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각각 별도로 만났다.

만남은 아베 여사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아베 여사는 드라마 ‘겨울연가’를 계기로 다양한 한국 대중문화를 접했으며 한때 한류 팬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일본에서도 영향력이 큰 우리 기업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기업은 이를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와 아베 여사 간 만남에서는 지난해 7월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아베 여사에 대한 위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남북자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아베 여사는 김정숙 여사도 별도로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서는 전직 영부인 시절 일화들이 화두에 올랐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다자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등을 계기로 만나 포옹하거나 담소하는 모습 등이 여



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두 분이 자매처럼 밀을 나눴다”며 “아베 여사에 대한 위로와 함께 영부인 시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 임현주 기자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건
강
한
정
치
후
원
금
이
여
러
듯
을
비
우
한
토
양
에
서
이
루
듯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개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종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희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구형…검찰 “이재명 승인으로 특혜”

김인섭 “성남시에 의견 전달했을 뿐…로비스트로 낙인”

백현동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건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해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결과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 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동시에 투명한 사업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시아디벨로퍼 정バラ 회장으로부터 받은 77억원이 동업 관계에 따른 정당한 분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무원 청탁에 대한 대가”라며 “정 회장은 피고인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성남시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해 금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도 정 회장으로부터 주 거용지 확대가 필요하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씨의 은밀한 지시와 이 대표의 승인을 통해 그대로 실행돼 막대한 특혜가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당시 제가 했던 일이 언론에 보도되 고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백현동 로비스트로 낙인찍혀 결코 개발될 수 없었던 땅이 저의 루비를 통해 일사천리로 개발됐다는 것이 잠 설칠 정도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 시에 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 로비로 특혜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해도 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과 동업 관계였다면 실제로 출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수감돼 있어 정

회장이 PFV를 설립하는 사실을 몰랐다”며 “다른 누군가를 배불리는 데 저만 이용당하면서 제 역할이 로비로 치부돼 허탈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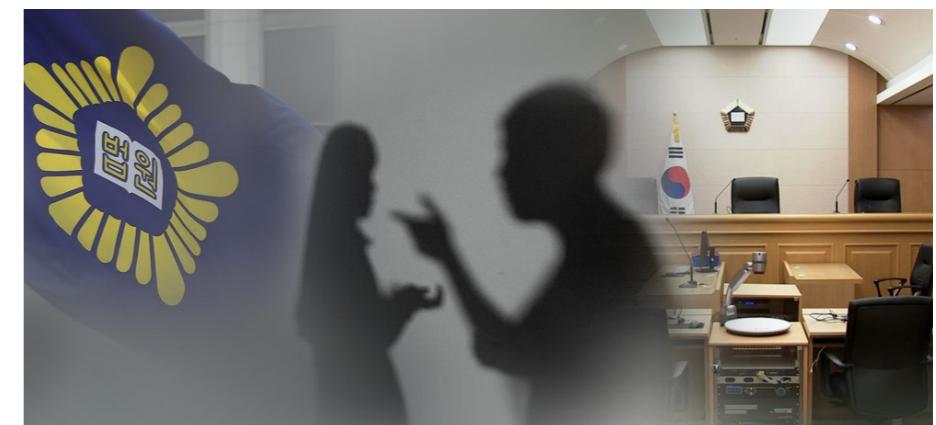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통해 로비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엔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황,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응변설

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3 일 열린다.

/ 송진영 기자



사내 연인과 결별 후 돌변해 괴롭힌 40대 상사…신고하자 스토킹

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땁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 안병호 기자

‘170억원대 사기’ 인터넷카페 운영자 법정서 석방 요구

“일해서 갚을 수도 있다” 주장…피해자들은 엄벌 촉구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을 요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0·여)씨는 1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석방이 되면 합의를 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부주의로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밖에 있었다면 수금할 문제도 있고 일을 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

시길 바라겠다”고 짧게 답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기를 당하고 지난 2년 동안 전셋집을 월세로 빌고 야간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이들 간식비도 줄여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벌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71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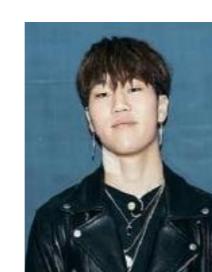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기소 당시 A씨의 혐의 액수는 이보다 20억~30억원가량 적었으나 검찰은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얻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 홍명섭 기자

마약 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다 바스타드)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아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로

/ 오문섭 기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美 대선 여론조사 평균…바이든, 트럼프에 1.9%p 뒤져

더힐 집계…공화 아이오와 코코스, 트럼프-2위 격차 상대적 근소

내년 미국 대선 가상 대결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국 평균 2%포인트 가량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497개 여론 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평균 지지율은 41.8%로 트럼프 전 대통령(43.7%)보다 1.9%포인트 낮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또 다른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대결 시에는 평균 42.2%의 지지율로 디샌티스 주지사(40.9%)를 1.4%포인트 앞섰다. 가장 최근 이뤄진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의 9~12일 조사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나란히 43.0%로 동률을 기록했다.

라스무센 리포트가 지난 6~1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0%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38.0%)을 무려 10%포인트 앞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와 입소스의 5~11일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38.0%)이 바이든 대통령(36.0%)을 2%포인트 앞질렀다. 다만 여론조사업체 시그널(Cygnal)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47.0%)이 트럼프 전 대통령(45.8%)을 1.2%포인트 앞섰고, NPR과 PBS의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49.0%) 트럼프 전 대통령

(48.0%)에 1%포인트 우세했다.

내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가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각종 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지율을 추이를 보여왔다.

최근 들어서는 공화당 경선에서 다른 주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세를 몰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스탠스를 놓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며,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균열이 엿보이는 상황이다. 962개의 전국 여론 조사의 평균을 낸 결과 이날 기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2.6%로 집계됐다.

또 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 조사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균 62.4%의 지지율로 디샌티스 주지사(11.4%),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11.4%), 비비 라마스와미(4.7%) 등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내년 1월 열리는 첫 코스(당원대회) 개회지로, 공화당 대선 경선의 문을 여는 아이오와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50.9%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밀돌았다. 디샌티스 주지사(18.7%), 헤일리 전 대사(16.8%) 등이 뒤를 이었다.

/ 박민혁 기자

베트남 '16조원대 금융사기' 수사 일단락

주동자 등 86명 기소

베트남 당국이 16조원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 주동자와 공무원 등 총 86명을 기소했다. 16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검찰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훌딩스의 쓰엉 미 란 회장을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란 회장에 대한 재판은 호찌민 인민법원에서 열린다.

당국에 따르면 란 회장은 측근들과 공동해 계열 은행인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동(약 16조8천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베트남 GDP(국내총생산)의 3%를 넘는 규모다.

수사 결과 란 회장은 사실상 SCB 지분의 91.5%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측근들을 통해 하위 대출 신청을 해서 돈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란 회장은 작년 10월 공안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전직 국영은행 관계자와 감사담당 공무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85명도 기소했다. 이중 공무원들이 란 일당의

범죄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 액수는 520만달러(약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현행 금융 및 대출 관련 규정에 허점이 다수 발견해 향후에도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과 문제가 있는 규정 보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양희진 기자

한미일·알바니아, '유엔 회원국, 탈북자 송환금지' 촉구 공동성명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성명…탈북자 북송 중국 겨냥한듯



지난 8월 안보리 북한인권회의 후 한미일 유엔대사의 기자회견

한국과 미국, 일본,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당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과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는 15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함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에는 구체적인 국가명이나 사례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북한의 국경 재개방 후 탈북자를 대거 북송한

중국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과 알바니아는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6년 만에 개최한 공동회의를 주도한 국가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과 알바니아는 “안보리 이사국 및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 및 유린이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미일과 알바니아는 “북한은 모든 인권침해와 유린을 종식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 및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강민호 기자

영 해리왕자, 휴대전화 해킹해 기사 쓴 신문에 손배 승소

영국 해리 왕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정보로 기사를 쓴 타블로이드 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BBC 등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미디어그룹뉴스페이퍼(MGN)가 해리 왕자의 휴대전화를 2003~2009년에 해킹했다고 판단하고 14만600파운드(약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GN은 대중인 테일러 미러, 선데이 미러, 선데이 피플 등을 거느린 미디어 그룹이다. 법원은 해리 왕자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기사 33건 중 15건이 전화 해킹과 다른 불법 정보 수집의 결과물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MGN이 1996~2010년



송고한 기사 147건에 불법 수집한 정보가 담겼다면 소송을 냈다.

법원은 MGN의 고위 경영진이 해킹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봤다.

해리 왕자는 소송대리인이 대독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끔찍한 행위를 체계적으로 실행한 후 은폐·증거인멸을 저지른 일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MGN은 성명에서 “과거 잘못에 관해 전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며 “이번 판결로 여러 해 전에 벌어진 일이 명확히 정리되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MGN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첫 사례로 배우·스포츠 스타 등 100여명의 원고 중 해리 왕자 등 4명의 사건 재판이 먼저 시작됐다.

해리 왕자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배우 마이클 브 블록은 3만1천650파운드(약 5천만원)를 배상받게 됐으나 배우 니키 샌더슨 등 2명의 청구는 배상 시효가 지나서 기각됐다.

/ 남희철 기자

마르코스 “투자 유치 확대 위해 개헌 검토” 임기연장 노림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개헌을 검토중이다.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투자 유치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전날 밝혔다.

마르코스는 취재진을 만나 “필리핀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헌법을 토대로 마련된 각종 경제 관련 법률은 이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일각에서는 마르코스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임기를 늘리

외국인, 유통업 진출·토지소유 제한돼

“현행법이 투자 막아”

그리면서 “필리핀은 투자 친화적인 국가로 만드는게 목표이며 이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초기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매스미디어와 소규모 유통업 지분 취득이 금지된다. 또 광고, 공공재, 토지 및 거주 용 빌딩 소유, 교육사업, 원양어업과 관련해서는 소수 지분 소유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 마르코스의 친척으로 하원의장을 맡고 있는 마틴 로무알데즈도 내년에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필리핀 하원은 지난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장석호 기자

삼성생명

나를 이기고
세계를 이기다

수십만 번의 리시브와 수백만 번의 스매싱
땀과 투혼을 쏟았습니다

삼성생명 선수들이 코트에 새긴 투혼의 발자국
대한민국 배드민턴 세계 정상이라는 역사

삼성생명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안세영



서승재



강민혁



김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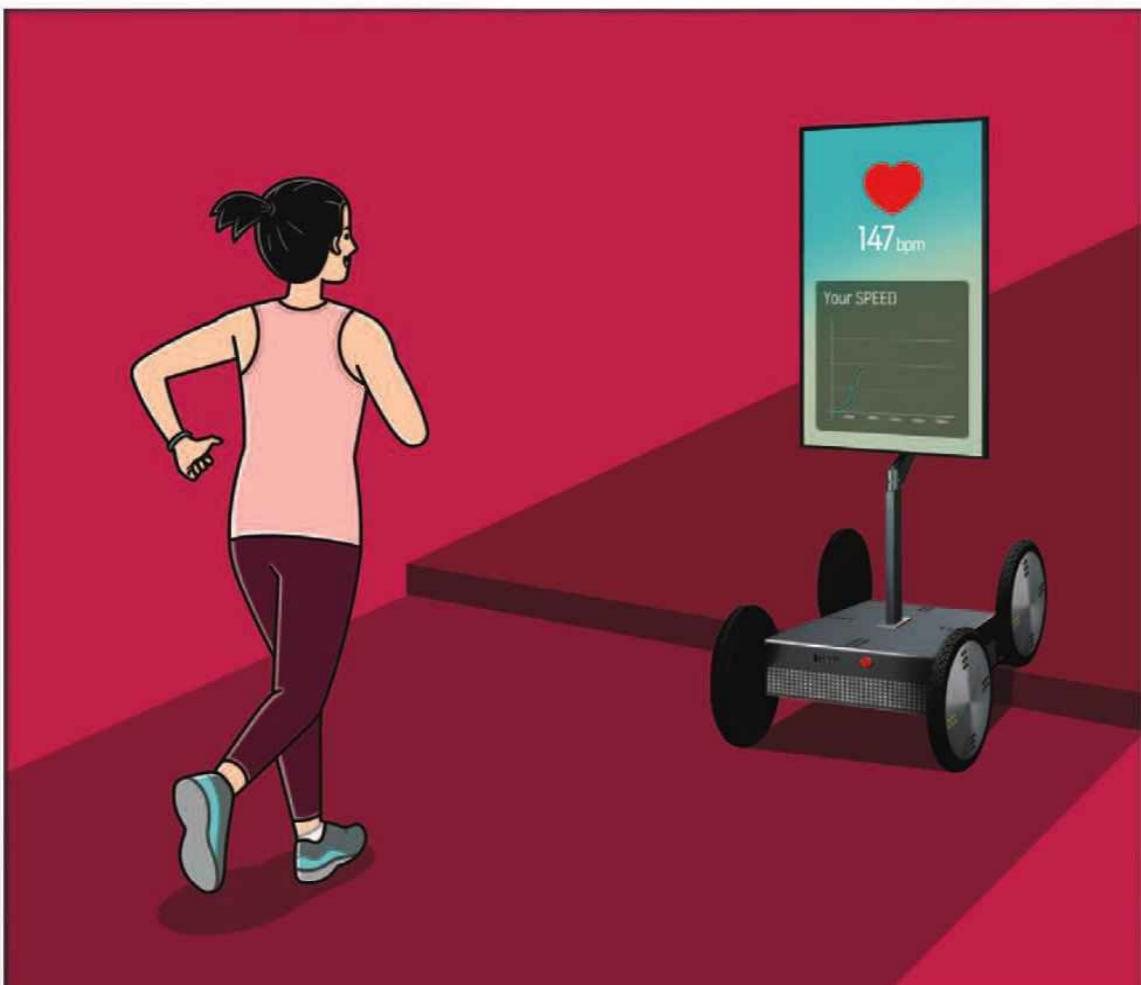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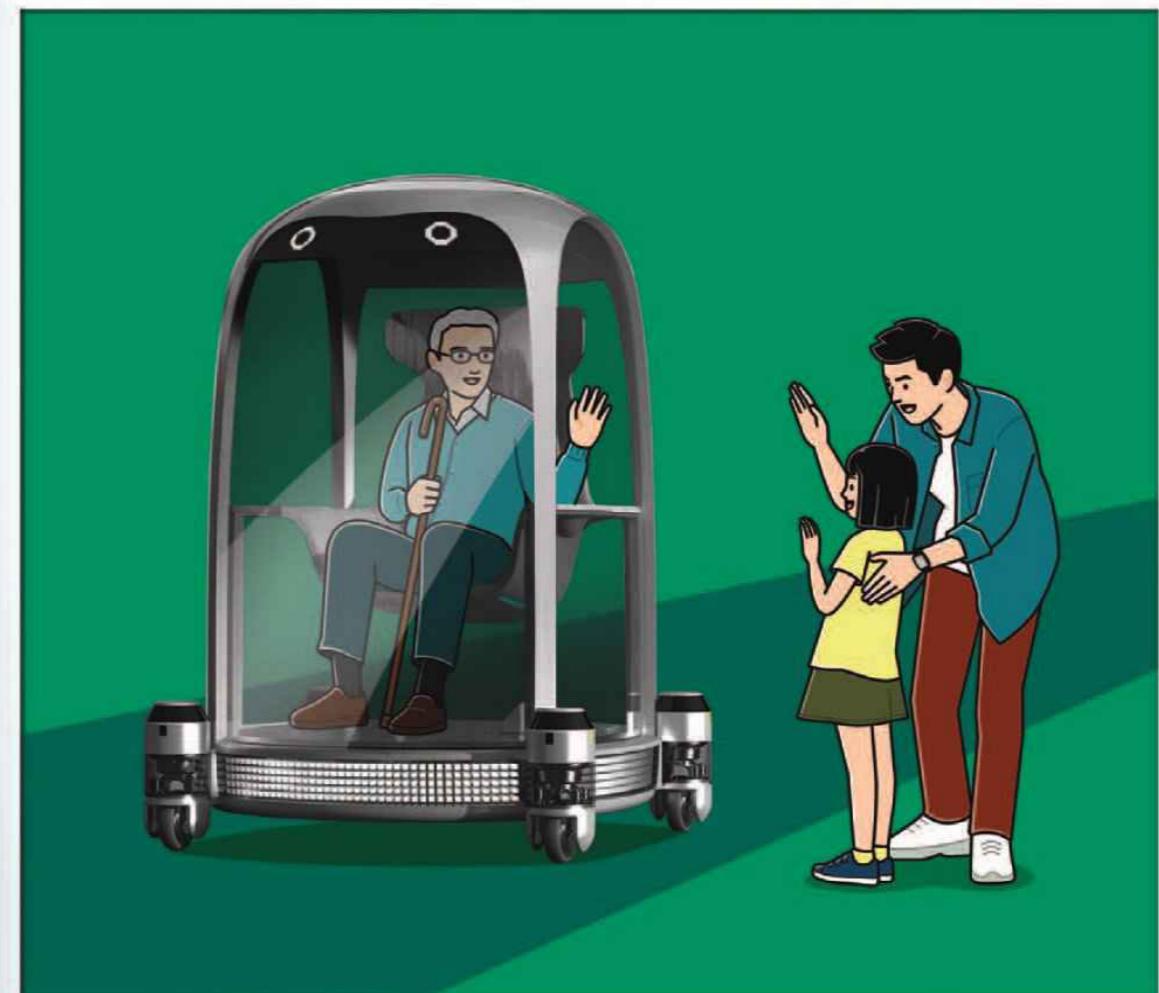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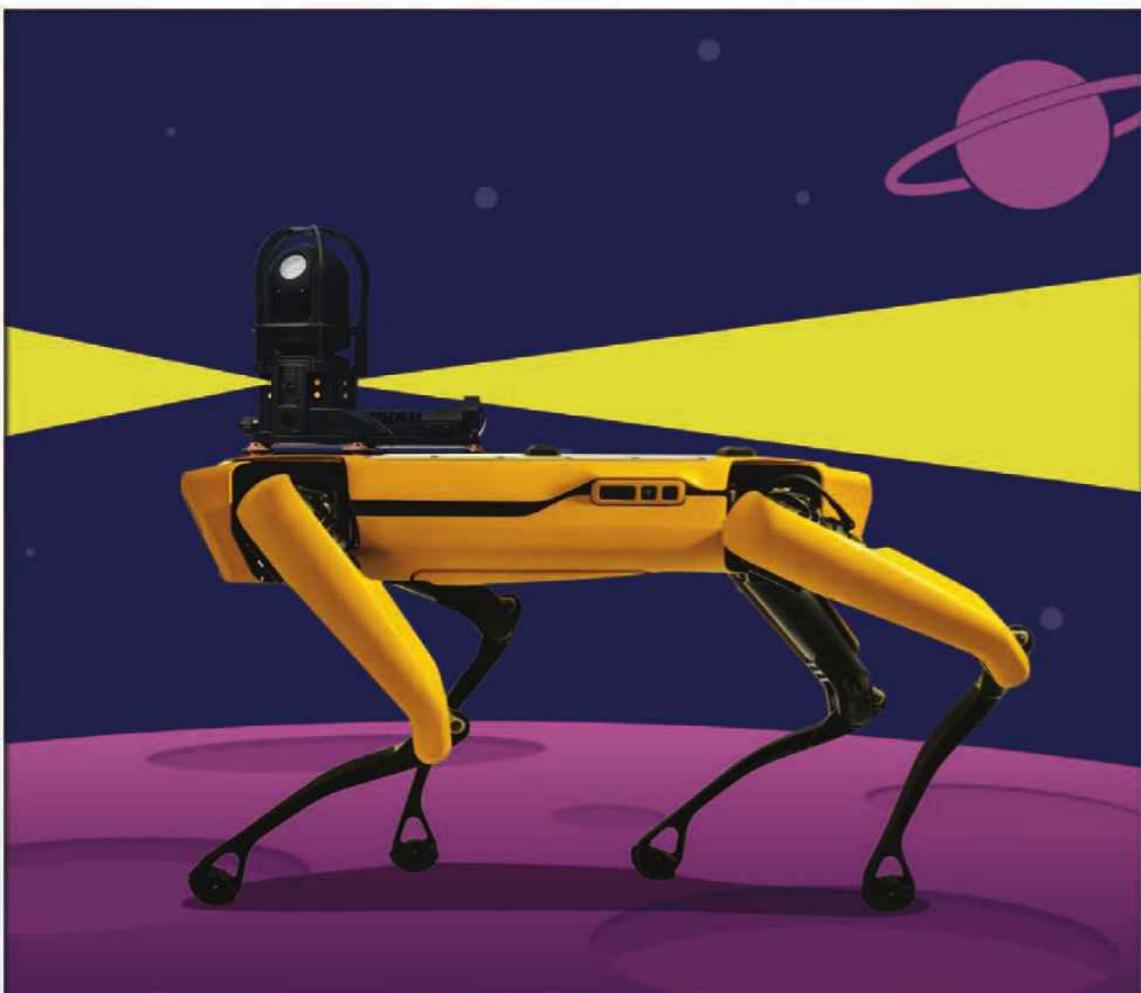


김가은

김혜정

안세영 · 서승재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
올해의 선수상 수상

정재욱 허광희 박경훈 최지훈 안윤성 최평강 김병재 이소율 이연우 이유림 유서연 김유정



모빌리티,
새로운
내일을 그린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놀라운 혁신이 되거나
소중한 추억을 주는
모빌리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비전을 만나보세요

HYUNDAI
MOTOR GROUP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후 LH서 연구용역 수주

후보자측 “경쟁입찰로 선정…장관 임명시 피엔티글로벌 주식 백지신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 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LH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LH 전직 임직원이 취업한 업체와 LH 사이 ‘전관 계약’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박 후보자 사례도 전관 수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LH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 6일 해외건설협회·피엔티글로벌과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2억7천800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였다. 해외건설협회가 주계약자이고, 박 후보자가 설립한 피엔티글로벌은 공동



이행 업체로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 임기를 마친 뒤인 2020년 2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컨설팅, 건설사업관리(PM), 중개 및 임대관리 등을 수행하는 피엔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피엔티글로벌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 이 회사 비상장주식 3만7천주(1억8천5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LH 사장 퇴임 후 ‘신남방경제연구회’를 세우기도 한 박 후보자는 2020년 9월 연구회 회장 자격으로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서 베트남 부동산과 관련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신남방경제연구회를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부동산 문제, 건설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측은 “LH 연구용역은 2개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외부 심사 위원의 심사를 거쳐 계약자가 선정된 것”이라며 “해외 건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내 선정됐으므로

전관예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피엔티글로벌 주식을 백지신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2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피엔티글로벌 사내이사직 사임계를 전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임명 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로도 2021년 6월부터 재직해왔다. 올해 1~11월 급여액은 3천590만원이다. 후보자 측은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에서 제출했으며, 현재 사퇴를 위한 서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왼쪽부터 SIDF 슬탄 칼리드 빈 알사우드 CEO, KGM 곽재선 회장, 사우디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 장관, SNAM사 무함마드 알 트와이즈리 회장

사우디 산업광물부 장관·SNAM사, KGM 평택공장 방문

KG모빌리티(KGM)는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사 일행이 평택공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평택공장 생산라인 및 디자인센터를 둘러보고, 향후 SNAM사에서 생산될 렉스턴 뉴 아레나, 렉스턴 스포츠&칸 등 차량을 관람했다. KGM 및 부품 협력사와 간담회도 가졌다.

방문 행사에는 술탄 칼리드 빈 알사우드 산업개발펀드(SIDF) 최고경영자(CEO)와 SNAM사의 무함마드 알 트와이즈리 회장 등이 참석했다. KGM은 SNAM사와 KD(나다운·부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 판매)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제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는 KD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곽재선 회장이 중동 경제사절단으로 사우디를 방문해 SNAM사와 부품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곽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SNAM

사 공장은 사우디 최초의 자동차 공장으로, 양국 간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 이 정표로 큰 의미가 있다”며 “KGM은 앞으로도 공급망 구축 및 확대 지원은 물론 SNAM사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사우디 현지 시장에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코라예프 장관은 “KGM과 SNAM사 양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평택공장을 방문했다”며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앞으로 사우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오윤성 기자

플랫폼 사전 규제 현실화하나 공정위, 경쟁촉진법 도입 추진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고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포털의 네이



버, 메신저의 카카오톡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앞서 “플랫폼의 경쟁력을 반칙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경쟁 과정에서 담금질 돼 만들어지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황정민 기자

정부 “차량용 요소 6.8개월분 확보…내주 공공비축 물량 방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요소수 수급에 문제없어”



정부가 차량용 요소·요소수 재고를 추가로 마련해 총 6.8개월분을 확보했으며 다음 주부터 공공비축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조달청의 공공비축 물량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계약물량을 포함한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국내 재고분은

6.8개월분으로 늘었다. 베트남 등 제3국 계약 물량은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이달에 5천400t, 내달에 1만2천150t, 내년 2월에 1만4천t이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물량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수 물량 1천930t을 생산업체의 수요 조사 등을 바탕으로 내주부터 방출하기 시작한다.

현재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 3천435곳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3천332곳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었다. 주유소를 통한 요소수 판매는 전주보다 감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재고가 없는 주유소의 경우 요소수 판매 비중이 높지 않은 곳이어서 실제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 정보 제공을 개선하는 등 유통 현장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백서연 기자

카카오택시, 개인택시조합과 합의…택시 4단체 상생안 모두 동의

수수료율 2.8%로 내린 새 가맹 택시 상품 출시 등 합의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택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개편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주요 택시 3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가맹 택시 업계(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기준 3% 이상이던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새 서비스 출시 등에 합의 했지만 개인택시조합연합회는 일부 사안을 놓고 이견이 갈려 세부 의견을 조율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택시조합연합회가 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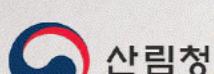


련한 ▲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 공정배차 정책 시행 ▲ 프로멤버십 폐지 ▲ 상생 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기준 합의안에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택시업계 모두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 김유정 기자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논·밭두렁을 태우시나요?
농촌에서의 불법소각, 모든 것을 태우는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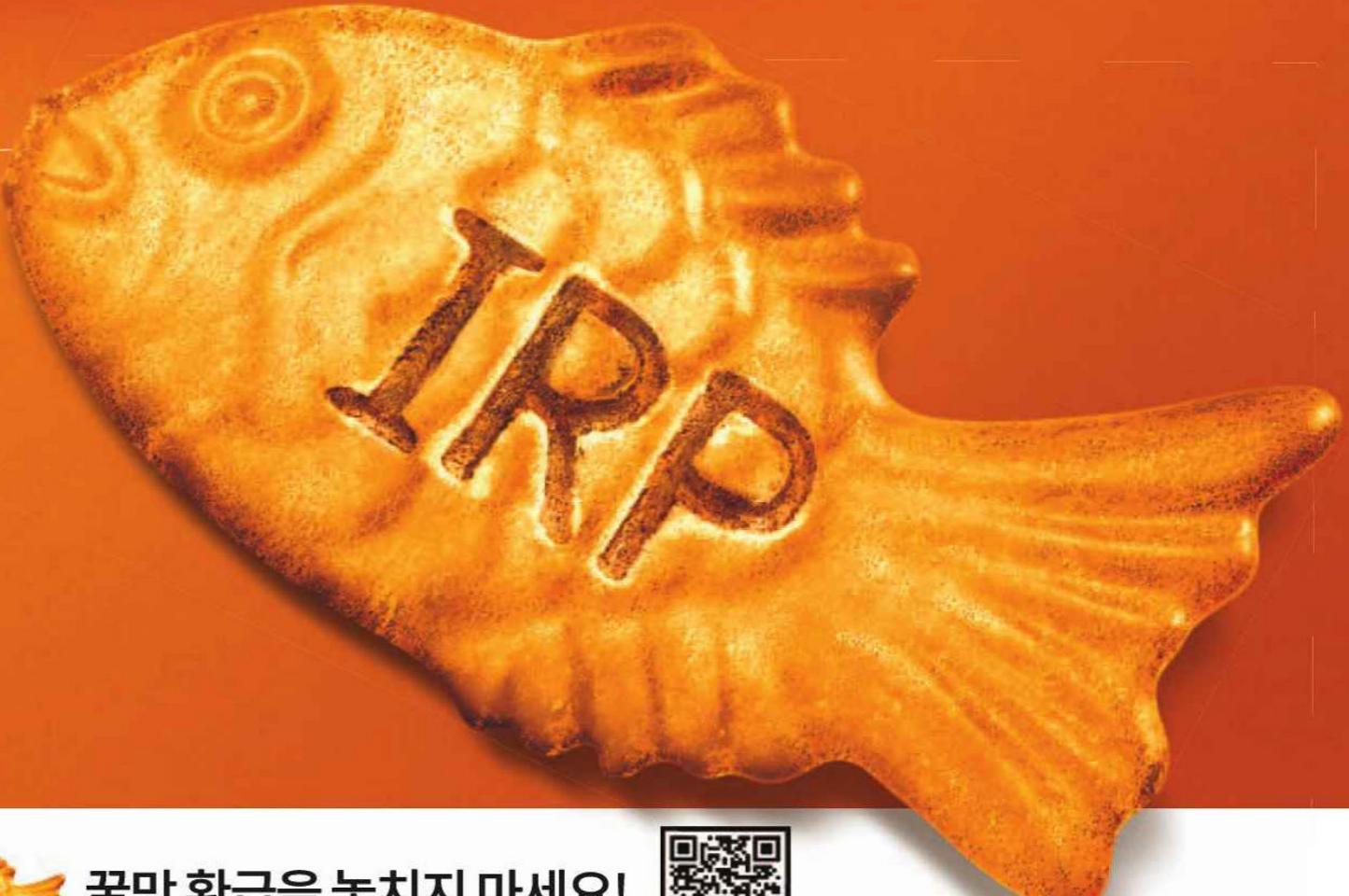
제1335호 |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지금이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



꿀맛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i-ONE 뱅크,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원리금 보장, 종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3-04295호(2023.11.23 ~ 2023.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462호(2023.11.17) [유효기간: 2023.12.31]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66-2566)로 문의 ※ 개인형IRP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5천만원까지(운용회사별합산) 예금자보호 ※ 개인형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아님 ※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개인형IRP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 유의사항>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원금지급형으로, 투자자 성향은 저위험(안정추구형)으로 분류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개인형IRP 계좌에서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만 예약매수 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 자산가격 변동, 발행회사신용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발행사 IBK 투자증권(AA, 2023.8.29, NICE 신용평가)의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 청약의 권유는(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름 ※ 수익률은 조건 충족 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 수익률 달성비보장, 투자전확인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가능 ※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 최대 손실율 초과 가능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환자 급증…정부, 항바이러스제 126만명분 추가 공급

인플루엔자(독감)로 의심되는 환자 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자 정부가 항바이러스제 약 126만명분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15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급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자 125만6천명분을 시장에 즉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에도 항바이러스제 31만6천명분을 시장에 공급했다.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돌려받아 정부의 비축 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공급 상황을 점검해 필요에 따라 추가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대체 처방 가능 품목이 다양한 만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대체 성분 제품 정보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시 제약사 증산 독려 등 조치를 하겠다”며 “일선 현장에서도 과도한 사재기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12월 2주차(12월 3~9일·올해 49주차)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61.3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3~18세의 의사환자 분율은 133.4명으로 유행 기준의 20.5배에 달했다.



김성진 제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중간 브리핑

“아내와 다퉐다” 조두순 야간 무단외출했다 40여분 만에 귀가

주거지 인근 방범초소 배회…검찰, 불구속 기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외 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내와 다투고 외출해 집 인근 방범초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거주지 들어가는 조두순

그는 “아내와 다퉐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자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 이현서 기자

제주시 일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관계기관이 확인에 나섰으나 가스 누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냄새의 진원지도 찾지 못했다.

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신고는 오전 8시 5분부터 오전 11시 10분 사이에 12건 접수됐다.

이에 소방당국과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기관이 확인에 나섰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다.

신고가 주로 들어온 제주시 애조로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돼 있어서 가스공사의 가스누출 검지 차량으로 제주시 명도암~LNG제주기지와 애월읍 일대 등 총 47km 구간을 1차로 확인했으나 특이한 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등을 고려해 애월읍에 있는 한 아스콘

업체를 냄새의 진원지로 추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아스콘 업체에 작업 종지를 요청해 오전 11시 20분께 작업이 중단된 이후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 영산강유역환경청, 경찰특공대, 가스안전공사, 해병대 9여단 등 유관 기관은 함께 해당 아스콘 업체를 방문해 각 기관의 장비를 동원해 가스나 화학물질 등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특이한 점은 찾지 못해 결국 냄새의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성진 제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이 냄새가 가스 냄새라고 단정지은 순 없다”며 “가스는 원래 냄새가 없어서 가스 누출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를 넣는데, 마늘 썩은 냄새나 석탄 냄새 등 유사한 냄새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 송진영 기자

가수 인순이가 세운 다문화 ‘해밀학교’ 구글 레퍼런스 스쿨 인증

구글 에듀테크 도구 사용해 교육 현장 변화 주도…“디지털 격차 해소”



해밀학교 학생들과 컬래버레이션 무대 선보이는 인순이

플랫폼을 활용해 교육환경 변화를 이끌었다.

한국에는 현재 12개 학교가 구글 레퍼런스 스쿨 인증을 받았으며, 해밀학교는 국내 다문화학교 중에는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에는 도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에 선정되기도 했다.

해밀학교는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가 2013년 4월 홍천에 세운 중학교 교육과정의 학교로 지금까지 7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해밀학교의 ‘해밀’은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싶은 인순이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인순이는 현재 해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해밀학교가 지금까지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잘 발전시켜 여러 학교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오석준 기자

항상 그리워하던 고향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그리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마음을 보냈습니다. 고향에게 정성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레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담레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담레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 기부 한도액: 개인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불가)

아산시 “경찰병원 분원 ‘550병상’ 규모, 타당성 충분”

충남 아산시에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할 경우, 경제성은 물론 계획된 550병상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의 의료 수요가 예상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경귀 시장 주재로 ‘국립경찰병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용역 결과 경찰병원 분원은 초사동 463의 10 일대에 건축 총 면적 8만460㎡, 55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력은 의사 105명, 간호사 469명 등 총 90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 및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천360억 원이다. 특히,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이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수요 역시 경찰수요와 지역수요 등 1

/ 노승만 기자

SAMSUNG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깨끗한 Air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

전남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공식 선언

“광역비자 운영…지역소멸 위기 극복 취지에 부합”



김영록 전남지사

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피력했다.

이민청은 세부 계획 수립과 분야별 퀘터 규모 등 정책 결정에 집중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 관리 업무를 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전남도는 제안해 왔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비자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 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전남도는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리를 갖춘 동북아 관문지역으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는 등 이민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온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희성 기자

부산노동권익센터 “이주노동자 21% 주 60시간 이상 일해”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이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한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7~9월 부산에서 일하는 17개 국가 이주노동자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주 40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은 14.9%, 40~52시간 미만은 36.5%, 52~60시간 미만 27.3%,

60시간 이상은 21.3%였다.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잘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주에 하루만 쉬다는 응답률은 39.8%, 이를 쉰다는 이는 45.0%였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8.2%, 모른다는 비율은 19.7%였다. 47.2%는 연차휴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261만원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오

래 일에도 근속 연수를 거의 보장받지 못했다. 1년 이하 일한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56만여원인데 반해 10년 초과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68만여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조사 대상의 10.6%인 76명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으며 15.8%인 115명은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곽도현 기자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한국이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posco
INTERNATIONAL

With POSCO

춘천 세대 잇는 ‘온세대합창페스티벌 송년음악회’ 22일 개최

강원 춘천시에서 연말을 맞아 모든 세대가 모여 합창하는 페스티벌이 열린다. 춘천문화재단은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온세대합창페스티벌 송년음악회’를 2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각 합창단 멤버의 지도로 6주간 연습 과정을 거친 20팀의 가족합창단이 참가해 무대를 만든다.

그동안 모든 세대가 모여 매년 공연했던 페스티벌의 감동을 연말을 맞아 다시 한번 연출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앞서 지난 8월 25일부터 9일간 다양 한 연령대와 가족 등 2천여명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온세대 합창페스티벌이 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합창단별로 다양한 성탄곡을 부르고 다음 합창단을 지목하는

성탄곡 릴레이 영상챌린지’도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은 온세대 공식 인스타그램(@oncccf)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영주 기자

“충남에 국립 의대 설립해야”

220만 도민 힘 모으다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데 도민들이 힘을 모은다. 15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충남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주진위’ 출범식이 열렸다.

추진위는 지역 사회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공공의료기관장, 보건의료 관련 교수 등 18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달선 합주학원(한서대) 이 사장이 맡았다.

추진위는 국립의대 설립 확정 때까지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정책 포럼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도민 여론을 결집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아파도 참아가며 서울로 원정 치료를 가는 불편에서 벗어나야 하고, 후손들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데 도민 모두가 깊이 공감한다”며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220만 도민의 열망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의료 낙후 지역인 충남에 국립의대를 먼저 신설하고 나머지 정원을 각 지역에 안배하는 게 마땅하다”며 “법도민주진위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국립의대 설립을 현실화하자”고 강조했다.

/ 황순정 기자

서산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흘째…대체버스 12대 투입

버스회사, 전체 52대 중 전기·수소버스 13대만 시내권 운행



충남 서산 시내버스가 첫차부터 운행을 멈춘 지난 14일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대체차량으로 긴급 투입된 전세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충남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흘째인 16일 대체 전세버스 12대가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읍·면 소재지 간 무료 운행에 투입됐다. 전날에는 14대가 운행했는데, 주말이라 투입 차량이 줄

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에 대비해 관용차량 3대도 대기하고 있다. 대체 버스 운행정보는 서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과 읍·면 소재지 간 이동은 무료 택시 50대가 맡는다.

이날도 서산 서령버스는 전체 보유 버스 52대 가운데 전기·수소차 등 13대만 시내권에서 운행하고 있다.

앞서 서령버스는 ‘운송 수입금이 압류돼 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운행 중단을 시에 통보했다.

서령버스는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회비 2천400만원과 직원 퇴직금 8천400만원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일 운송 수입금을 압류당했다.

서산시는 서령버스에 ‘이른 시일 내’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하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령버스가 3차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운수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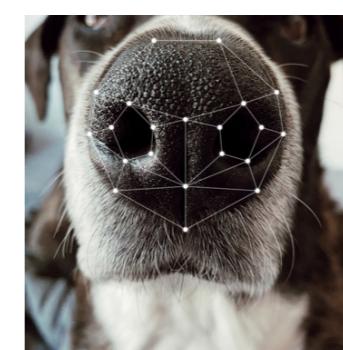
/ 임종현 기자

반려견 잃어버릴 걱정 던다…창원시 코무늬 등록 서비스 인기

경남 창원시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반려견 코무늬(비문) 등록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운영 중인 ‘창원퍼피’ 앱을 통해 현재까지 반려견 1천500여 마리가 코무늬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코무늬 등록 절차는 간단하다.

반려견 가족은 창원퍼피 앱을 내려 받아 견주 인적사항, 반려견 정보 등을 입력하고 코무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된다. 창원시는 개마다 코에 고유한 무늬를 가지고 있고, 코무늬가 사람의 지문처럼 평생 변하지 않아 개체 식별에 쓰일 수 있는 생체정보라는 점에 찬안해 창원퍼피 앱을 개발했다. 반려견 코무늬 등록 서비스를 도입한 건 전국 지자체 중 창원시가 처음이



다. 이에 창원시에는 코무늬 등록 서비스와 관련한 타 지자체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반려견 코무늬 등록 서비스는 현행 동물 등록 방식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다. 기존 동물 등록은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칩을 목줄 등에 매달아 쓰는 ‘외장형’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일부 반려견 가족은 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외장형의 경우에는 활동 중 분실 우

려가 있어 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코무늬를 통한 반려견 등록은 이런 우려 없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창원시는 지역 내에서 유실·유기견을 발견할 경우 코무늬 정보를 조회해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반려동물 가족들의 반려견 유실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동물 등록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연간 1천300건 상당 발생하는 유기견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본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반려동물(개·고양이 포함)은 5만 9천마리 상당인데, 이 중 대부분이 개”라며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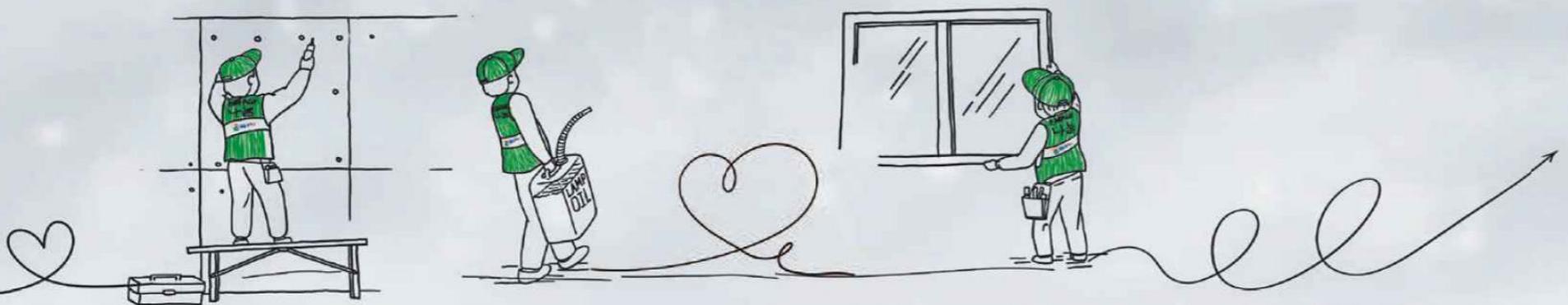
/ 신승희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입단식…“한국에서 온 바람의 손자”

6년간 1억1천300만 달러, 한국인 포스팅 최고액 계약…등번호 51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초대형 계약을 한 이정후(25)가 ‘빅리거’로 첫 행사를 치렀다.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룬 뒤 처음 가진 행사의 주인공은 이정후, 자신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파크에서 이정후 입단식을 열었다.

이정후는 파르한 자이디 샌프란시스코 구단 사장으로부터 ‘SF’가 교차한 모자와 유니폼을 건네받았다. 유니폼에는 이정후가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달았던 51번이 박혀 있었다.

자이디 사장은 “이정후는 KBO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그의 성장을 지켜봐 왔다”며 “그는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훌륭한 활약을 했고 우리는 이번에 그를 스카우트 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국프로야구 키움의 영웅이었던 이정후는 구단 관계자와 현지 취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의 거인이 되는 의식을 치렀다.

“헬로 자이언츠, 마이 네임 이즈 이정후(안녕하십니까, 이정후입니다)”라고 영어로 운을 뗀 이정후는 계속해서 영어로 “나는 한국에서 온 ‘바람의 손자’다. 나를 영입해준 샌프란시스코 구단주 가족과 예



이정후가 1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입단식에서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전트 스콧 보라스에 고맙다. 아버지와 어머니께도 감사하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꿈을 이뤄 기쁘다. 나는 이곳에 여기기 위해 왔다. 레츠 고 자이언츠”라고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정후의 아버지는 현역 시절 ‘바람의 아들’로 불린 아버지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다. 이정후의 별명도 자연스럽게 ‘바람의 손자’가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정후는 자신의 별명에 관해 현지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을 때는 “핸섬?(잘생겼느냐)”이라고 묻는 여유도 드

러냈다. 아버지인 이종범 전 LG 코치와 어머니 정연희 씨도 입단식에 참석해 상기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사회사가 이정후의 부모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는 역사도 깊고 레전드 선수도 많은 전통 있는 팀”이라며 “그런 팀에서 나를 선택해 주고 뛰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팀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전인 14일 “이정후와 계약기간 6년 총액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462억원)에 계약했다”며 “2027 시즌이 끝난 뒤엔 옵트아웃(구단과 선수 합의로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정후의 빅리그 첫 시즌(2024년) 연봉은 700만 달러다. 이후 2025년 1천600만 달러, 2026년과 2027년엔 2천200만 달러, 2028년과 2029년 2천50만 달러를 받는다. 계약금 500만 달러다. 계약 기간 동안 56만5천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정후는 포스팅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 최고액 기록을 경신했다.

이정후는 혼역 한국 최고 타자다. 2017년 프로 생활을 시작해 올해까지 88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40, 65홈런, 515타점, 69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898을 기록했다. KBO리그 3천 타석 이상 들어선 선수 중 최고 타율을 찍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정후를 2024년 샌프란시스코 톱타자이자 중견수‘로 꼽았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에게 ‘평균 이상의 출루율과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대한다.

/ 최준용 기자



영 더타임스지, 올해 스포츠계 파워 10인에 ‘페이커’ 선정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스포츠계 10대 파워 리스트에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임단 T1의 주장이자 2023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우승자인 ‘페이커’ 이상혁이 이름을 올렸다.

더 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페이커를 세계 스포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명 중 1명으로 소개하고, 온라인 판 기사에서 그의 사진을 한 가운데 배치했다. 더 타임스는 페이커에 대해 ‘대마불사왕’(The Unkillable Demon King)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2023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우승한 한국 팀 T1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더 타임스는 통상적으로 스포츠 섹션에서 e스포츠를 잘 다루지 않지만 이제 페이커가 우사인 볼트처럼 올림픽의 주류 파워 리스트에 포함됐다. / 오성준 기자

스타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 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의 아시르 알루마이昂 총재를 스포츠계 주요 인물로 꼽았다.

PIF는 사우디아라비아 골프단체 LIV골프를 갖고 있고, 축구에서는 2년 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을 인수한 데 이어 올해 사우디 리그 4개 구단을 사들였다.

이 밖에 미국으로 팀을 옮긴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미국프로야구(MLB) 역대 최고 계약액(10년 7억달러)을 기록한 오타니 쇼헤이, 호주 여자축구 최고 스타인 샘 캐, 인플루언서·종합격투기 선수 등의 복싱 경기를 기획하는 유튜버 KSI 등이 파워 리스트에 포함됐다. / 오성준 기자

배드민턴 안세영, 부상 여파 딛고 BWF 왕중왕전 4강 진출

김가은은 투중에게 석패…서승재, 남복·흔복 준결승 진출

배드민턴 안세영(21·삼성생명)이 부상 여파를 딛고 세계 배드민턴 ‘왕중왕전’ 준결승에 극적으로 진출했다.

안세영은 1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파이널 2023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타이즈잉(대만)을 2-0(21-17 21-14)으로 꺾었다.

안세영은 이로써 조별리그를 2승 1패로 마무리하고 조 1위로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타이즈잉도 2승 1패로 안세영과 경기 승수는 같지만, 세트 전적(4승 3패)에서

안세영(4승 2패)에게 밀려 조 2위가 됐다. 1차전에서 대표팀 동료 김가은(삼성생명)에게 완패했던 안세영은 2, 3차전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기사회생했다.

반면 김가은은 이날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투중(인도네시아)에게 1-2(14-21 22-20 17-21)로 패해 조 4위(1승 2패)를 기록, 준결승행이 좌절됐다.

1세트를 내준 김가은은 2세트 19-20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3세트 10-17 예선 19-17까지 잘 훑어갔으나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BWF 월드 투어 파이널은 배드민턴 국

제대회 한 시즌을 정리하는 대회로, 각 세부 종목 상위 8명(팀)만 출전해 최강자를 가린다. 종목별 8명의 선수는 4명씩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2명만

이 4강에 오르는 구조다.

안세영과 ‘올해의 선수’로 뽑힌 서승재(삼성생명)는 강민혁(삼성생명)과 남자복식, 채유정(인천국제공항)과 혼합복식에서 모두 4강에 올라 저력을 과시했다.

여자복식 같은 조에 속한 이소희(인천 국제공항)-백하나(MG새마을금고)와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은 희비가 엇갈렸다.

이소희-백하나는 1차전에서 김소영-공희용을 2-0(21-11 22-20)으로 꺾고 3연승으로 4강에 선착했으나 김소영-공희용은 최종 1승 2패를 거두고 탈락했다.

혼합복식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순군청)도 같은 조 서승재-채유정 등에 밀려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 신형철 기자



한국, 이집트 꺾고 주니어 남자 하키 월드컵 13위



한국 남자 주니어 하키 대표팀이 국제하키연맹(FIH) 월드컵에서 13위에 올랐다.

한국은 1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3회 FIH 주니어(21세 이하) 남자 월드컵 대회 10일째 13-14위전에서 이집트를 4-3으로 물리쳤다.

우리나라는 최지호(인제대)와 류호윤(제주국제대), 임도현(조선대)의 득점으로 3-1로 앞서다가 3-3 동점을 허용했으나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임도현이 결승 골을 터뜨렸다.

임도현은 이번 대회 8골을 넣어 득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 권정석 기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운명 개척자 박민영 X 조력자 나인우

심박수 급상승시킬 색다른 로맨스 케미! 투샷 스타일 전격 공개!

박민영과 나인우가 운명 개척자와 조력자의 색다른 로맨스 케미를 예고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월) 저녁 8시 50분 첫 방송될 tvN 새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 연출 박원국, 한진선/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DK E&M)에서 운명 개척과 운명적 사랑을 함께 맞이할 박민영(강지원 역), 나인우(유지혁 역)의 투샷 스타일이 첫 공개되어 심박수를 높이고 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경험하며 시궁창 같은 운명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본격 운명 개척 드라마다.

앞선 티저 영상에서는 남편 박민환(이경 분)과 절친 정수민(송하윤 분)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어주며 철저한 복수



를 시작한 강지원과 이를 돋는 유지혁의 관계성이 그려졌다.

부하직원인 강지원과 직장 상사인 유지혁, 지극히 공적인 관계이자 회사 내에서의 특별한 접점도 없었던 두 사람에게 어떻게 같은 편에 서게 된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에 포착된 두 사람에게서는 아슬아슬한 텐션이 엿보여 설렘을 유발한다.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지만 교차한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이 보는 이들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다.

그저 무뚝뚝한 상사일 뿐이었던 유지

혁이 강지원을 향해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것도 눈에 띈다. 어딘가 위태롭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강지원과 그런 그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지혁.

무심함과 다정함을 오가는 아슬아슬한 기류가 서로를 향한 강렬한 끌림의 운명적 신호가 될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에 다채롭고 섬세한 감정 연기로 믿고 보는 로맨스 호흡을 보여줄 박민영과 나인우의 만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처참하게 짓밟히고 운명 개척에 뛰어든 강지원과 그를 물심양면으로 돋는 유지혁의 선 복수 후 로맨스를 더욱 리얼하게 표현할 두 사람의 시너지에 기대가 쏠린다.

박민영과 나인우의 설렘 보장 복수극 tvN 새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2024년 1월 1일(월)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 김채원 기자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 포스터

열두번의 죽음이 깨우치는 삶의 소중함

‘이재, 곧 죽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그가 미리 아는 죽음이다.’

15일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는 고대 그리스 시인 바킬리데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의 서

문을 연다. 이 작품은 주인공 최이재(서인국 분)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에 이른 별로 죽음(박소담)이 내린 심판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다.

‘이재, 곧 죽습니다’는 삶과 죽음을 오가는 비현실적 설정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오락적인 재미를 준다. 8부작의 분량 안에 열두 명의 죽음을 다루는 만큼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돼 지루할 틈을 두지 않았다.

특히 최이재가 폭력조직 암살자와 격투기 선수 지망생으로 깨어나는 부분에선 속도감과 타격감이 돋보이는 액션 장면이 펼쳐진다.

죽음과 최이재가 나누는 흥미로운 대화나 시각특수효과(VFX)를 이용한 지옥의 묘사, 권총으로 최이재를 쏴 이승에 보내는 연출 등 다른 볼거리도 충분하다.

여기에 더해 열두명의 특별출연 배우들이 최이재를 연기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최시원과 성훈, 장승조, 이재욱 등 쟁쟁한 배우들이 최이재에게 몸을 내주는 인물로 등장한다.

원작 웹툰인 ‘이재 곧 죽습니다’의 독자라면 원작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만화 속 장면을 OTT 드라마가 어떻게 구현해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작품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주제 의식은 앞으로 개발될 후반부에서 최이재가 어떻게 성장하고 달라질 것인지, 최이재가 죽음을 피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좋은 오락성과 생각할 거리를 담긴 했지만, 이야기의 성격상 자살과 살인 등 폭력적인 요소가 자주 등장하는 점은 시청 전에 염두에 둬야 할 지점이다.

8부작인 ‘이재, 곧 죽습니다’는 이날 정오에 파트1(1~4회)이 공개됐으며, 내년 1월 5일에 파트2(5~8회)가 공개될 예정이다.

/ 남우정 기자



뉴진스, 첫 리믹스 앨범 ‘NJWMX’ 19일 발매

그룹 뉴진스가 첫 리믹스 앨범 ‘뉴진스 원터 믹스’(NJWMX)를 선보인다.

15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는 오는 19일 싱글 ‘OMG’에 수록된 2곡의 리믹스와 데뷔 음반 ‘뉴진스’(New Jeans)에 실린 4곡의 리믹스, 6곡의 연주곡 등 12곡이 담긴 ‘NJWMX’를 발매한다.

겨울곡 ‘디토’(Ditto)의 리믹스부터 아프로 힙합 리듬에 기반해 재탄생한 ‘OMG’, 1990년대 R&B 스타일로 변신한 ‘하이프 보이’(Hype Boy), 오가닉

사운드 감성의 ‘허트’(Hurt) 등이 준비됐다.

소속사는 “이번 앨범은 ‘디토’ 공개 1주년인 19일에 발매된다”며 “올겨울 베니즈(펜던트명)와 함께 하고픈 뉴진스의 마음이 담긴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뉴진스 공식 SNS에 공개된 두 편의 티저 영상에서는 멤버들이 체육복을 입고 복도를 뛰어가거나, 하얀 눈밭 속에서 한 소녀가 사슴을 지켜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박소희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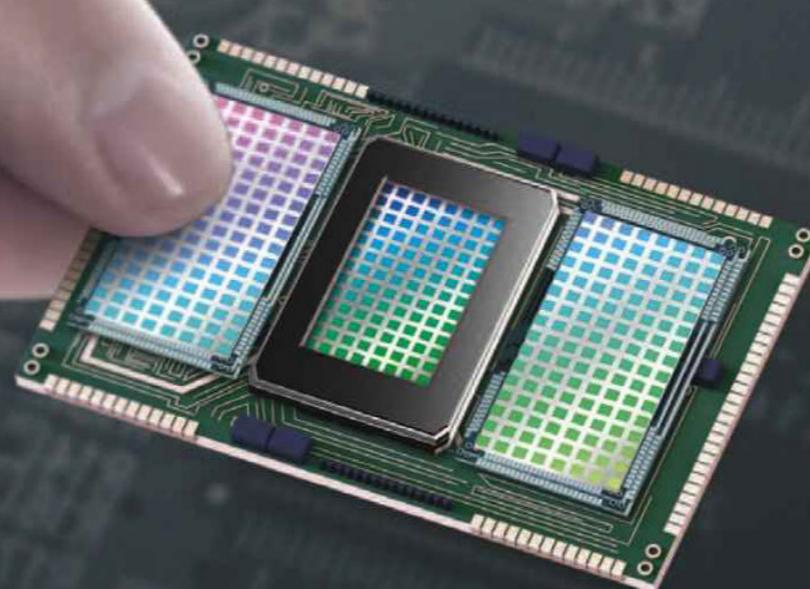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1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은 기술경찰이 지킨다!



최근 5년
해외 기술유출 피해액 25조원
해외 기술유출 건수 93건

특허청의 심사관 출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수사관들이 해외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관련된 범죄를 직접 수사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을 보호합니다

지식재산침해 신고상담센터 1666-6464



채권도 신한투자증권

변동성 높은 투자환경

주식도 꺼려지고, 예금도 꺼려지는 시장상황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목할 만한 투자 트렌드, 채권!

국공채, 우량채권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알파 앱,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채권 매매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상담전화 : 1588-0365 | www.shinhansec.com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채권>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 * 채권은 시황 및 경과기간 등에 따라 수익률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133호(2023년 2월 3일 ~ 2024년 2월 2일)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363호 (2023년 02월 06일 ~ 2024년 02월 05일)